

“소득증대 위해 완전혼합사료 공장 필요”

회원 80명 9천두 사육 ... “우수등급 받으려면 좋은 사료 먹이는 게 가장 중요”

‘강소농’이 살길이다 ② 고성군 한우협회

고성군 한우협회(회장 이장갑, 60세)는 80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2008년 발족됐다.

고성군 품목농업인 연구회중 두 번째로 회원이 많은 한우협회는 현재 9천두의 한우를 사육하고 있다.

이장갑 회장이 운영하는 한우농가에서는 540평 규모의 현대화시설에서 160두의 한우를 기르고 있다.

이회장은 간성을 해상리 본토 박이로 30년전 2마리의 한우를 키우기 시작해 현재 160마리로 늘리며 질 좋은 한우생산을 위해 오늘도 땀을 흘리고 있다.

우수한 한우 생산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해 오던 이회장은 지난 2003년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일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후에도 사료에 옥가루를 혼합해 한우에 먹여 우수등급판정을 받은 한우를 다량으로 출하시켰다.

최근엔 약썩바이오와 한약 등을 섞은 사료를 만들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등 최상등급의 한우생산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회장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우시장은 공급 물량이 많아 한우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상태다. 이같이 한우가격이 저렴해진 이유는 대목인 설과 추석에 구제역 파동으로 거래가 제한됐던 물량이 일시에 풀린데다 국내 축산 농가의 사육두수도 최근 280여만 두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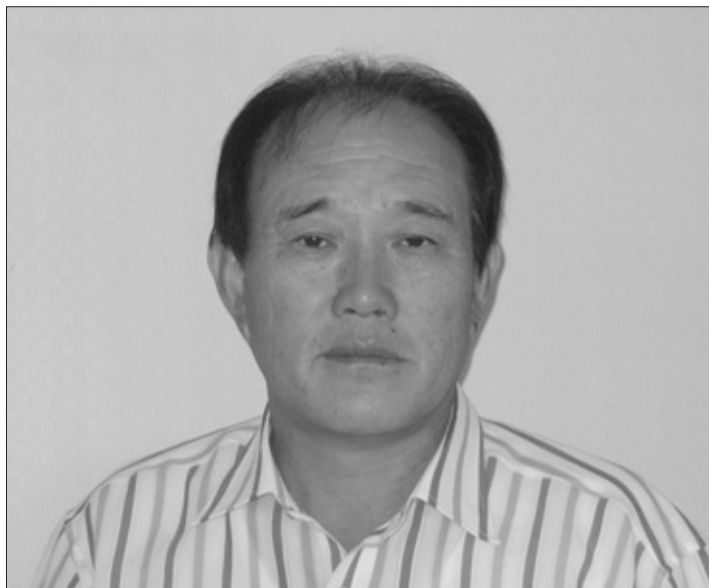
고성군 한우협회는 최근 속초

하나로 마트와 한우공급 계약이 체결돼 매달 20여마리의 한우를 출하하게 돼 농가소득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회장은 “한우를 양육하는 데 있어 사료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며 “좋은 사료를 먹인 한우가 우수등급판정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했다.

사료문제의 중요성을 파악한 이회장은 군수면담 등을 통해 T.M.R(완전혼합사료) 공장을 건립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표류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회장은 “고성지역 한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T.M.R 공장을 설립해 영양과 열량을 조절하고, 원가를 낮춘 대단위의 사료공급을 통해 우수등급의 한우



이장갑 고성군 한우협회 회장.

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농·축협과 한우협회, 행정 등이 판로개척에 힘써 안정적인 공급과 가격을 유지하고 지속

적인 사후관리로 강한 경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3년째 고성군 한우협회장을 맡고 있으며 금강농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원광연 기자



지난 19일 현내면 검장리 느랏골 현장에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중간평가회가 열렸다.

무농약쌀 생산량 차질 없을듯

현내면 검장리 느랏골 생산단지 중간평가회

고성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일 현내면 검장리 느랏골 현장에서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중간평가회를 가졌다.

2011년 지역농업특성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마련된 이날 평가회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와 농업인 및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 회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친환경 무농약쌀 생산단지는 현내면 민통선 북쪽 CIQ 앞에 위치해 있으며, 현재 15개 농가가 22ha면적에서 쌀을 생산하고

있다.

이날 평가회에서는 주요 시기별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진지역 벤치마킹, 농가별 포장 비교 평가 등 개선방안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토의가 이뤄졌다.

고성군 관계자는 “올해는 이상저온현상과 오랜 장마로 인해 평년에 비해 생육상황이 좋지 않은 편이나, 장마가 그치고 기온이 회복되면 생산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대한항공(003490)

여전히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이다. 그리스와 이탈리아 재정위기, 그리고 미국의 재정 확충 문제까지 국외 시장의 불안 요인이 증가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 요소는 앞으로 시장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에 집중하면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종목대응은 꾸준히 가능하다. 이미 많은 투자자가 알고 있듯이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

기 때문이다. 다수 투자자가 불안해하고 어려워할 때 가장 좋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지금은 일부 종목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매매를 하면서 불안 요소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외 증시의 불안 요인이 있지만 하지만 시장의 큰 추세는 상승이며 다시 한번 강한 상승을 기다리기 위해 우량 종목들을 선취매 하거나 단기 종목들에 대한 매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7월 하반기와 8월에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보다 강한 종목들을 골라야 함은 당연하다. 강한 종목군 중 대표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를 꼽을 수

있다. 시장의 추세보다 강하고 전고점을 넘어서는 흐름은 쉽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충분한 모멘텀과 수급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그리고 대한항공(003490) 역시 그러하다.

대한항공은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국내 1위의 민간 항공사다. 지난 2010년 6월 이후 1년간의 긴 조정을 보았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2011년 1분기 매출액이 증가했고 앞으로 증가가 예상되더라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했다. 2010년 6월 이후 충분한 조정을 받았던 이유에도 유가 상승이 있었다.

대한항공은 유가 불안과 함께 추세가 꺾이고 일본 지진 사태 때문에 추가 하락하였지만 일본 지진 사태도 결국은 회복될 자연재해이다. 유가의 상승이 불안하지만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대한항공에 다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인 흐름도 우상향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있어 여전히 단기적인 변동과 중기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